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13일 토요일 |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 72호

지난 30년간 2억 4천여만명이 만수대동상을 찾다

주체61(1972)년 4월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30년간 12억 4, 124만 7, 600여명의 조선인민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그이의 동상을 찾아 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국가적명절들, 자기 단위 창립일 등 기념일들과 경사의 날들을 맞을 때마다 먼저 만수대언덕에 올라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민족최대의 국상 후 주석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전례없이 많아 졌다.

비보가 전해진 후 다음날 새벽 그 수는 30만명을 헤아리고 7월말에는 무려 1, 000만명이상에 이르렀다.

력사의 언덕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을 뿌리며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태양의 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억척 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7만 1, 500여명의 해외동포들도 만수대언덕에 올라 수령님의 동상에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당 및 국가대표단들과 저명한 인사들, 국제회의와 예술축전 및 체육경기참가자들 등 외국의 벗들도 조선에 도착하여 **김일성**주석의 동상부터 찾고 있으며 그 수는 지금까지 17만 5,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1일

≪김일성화전시회≫에 40여개 단체 참가

이북은 11일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 (4.15)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에 내각의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직할시들에서 40여개 단체가 참가하게 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의 준비사업이 예정대로 끝나감에 따라 곧 개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전시회에 이북 각지의 각 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피운 **김일성**화도 전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맏아들 군뚜르 수카르노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외국대표단들도 자신들이 성의껏 마련한 **김일성**화를 직접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참관하러 오게 된다고 소개했다.

≪조선 **김정일**화연맹≫의 김인기 서기장은 이날 중앙방송에 출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단위들에서 ≪큰 규모의 전시회에 맞게 **김일성**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우며 전시대 제작과 장식 등을 비롯해 그 준비사업을 특색있게 성과적으로 끝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북의 ≪**김일성**화전시회≫는 지난 99년 4월 처음 열린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주석의 90회 생일을 맞아 평양 평천구역에 450㎡ 규모의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지난 10일 현지에서 개관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북 각지에는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이 100여개 설립되어 있으며 일반가정들에서도 소중하게 기르고 있다.

김일성화는 김 주석이 지난 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중 수카르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았던 난과(蘭科)의 열대식물이다.

정상용기자
연합뉴스 2002-04-12

김정일총비서께서 김련자일행을 접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0일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일본에서 활동하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접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련자가수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김련자가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자기들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나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련자가수일행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1일

2 노작
-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2)

4 세기와더불어
- 6장 2절 마지막 모습 (2)

5 칭송
- 수령님의 환갑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 노래하세 태양절
- 선군 – 정의의 검, 징벌의 검

6 구국의 소리
-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또다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시비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11일
- 이회창은 구린내 나는 몸뚱이를 오물장에 던지라
- 한나라당의 반민족적인 ≪대북기본노선≫
- 미제의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2)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11일 보도

11 평양방송
-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서의 불멸의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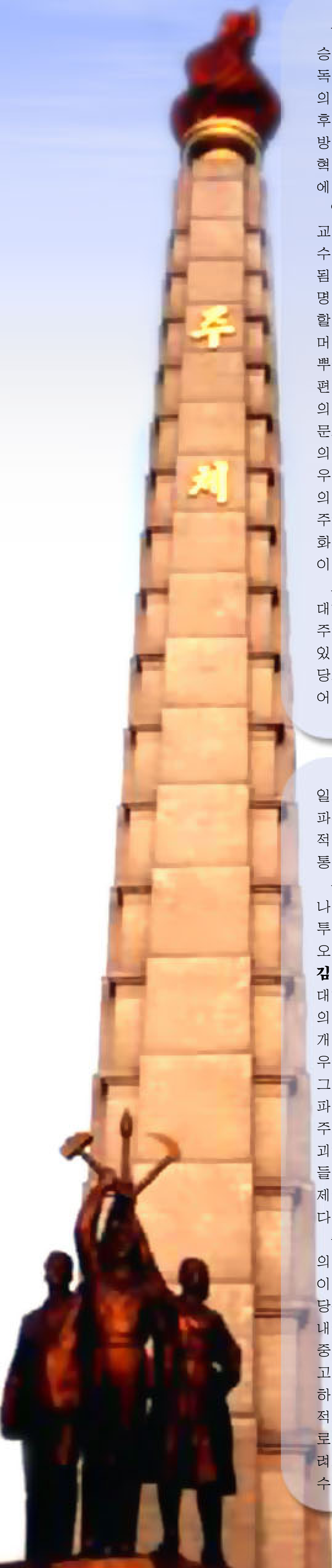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정보위의 ≪국민인권테러 시도≫규탄 기자회견
- 279개 사회단체, F–X 특별감사 청구
- 한총련 집회신고서 제출 경찰저지로 끝내 무산
- 프리처드 특사 5월 방북
-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법해석상 무리
- F15 ≪불공정≫, ≪철회해야≫ 88%

15 운동강좌
- 부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7)

16 조국통일3대헌장
-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3)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3)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 주체71(1982)년 10월 17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대주의자들은 남의 승인을 받아 당을 창건하고 남의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룩하려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해방 후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받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서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 당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건설의 기본노선이다. 당안에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당의 사상적 유일성은 오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실현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벌인 결과 전당에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다.

수령은 당의 최고영도자이며 당의 영도는 곧 수령의 영도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 놓았다. 우리 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의 위력을 비할 바 없이 강화하였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 올 수 있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당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우리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전과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어온 과정이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원칙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었다. 이것은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당이다.

당대열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당의 통일단결은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반당적 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당내반영이다. 반당적 조류와 이색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당대열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 요소들과 반당적 조류들을 극복하는 투쟁과정에서 대열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왔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섰던 투쟁대상은 종파주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영도하신 혁명대오안에서는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전대오가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 그런데 변절자, 시정배로 굴러떨어졌던 종파분자들이 해방 후 혼란된 틈을 타서 공산주의대열안에 잠입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저들의 종파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종파주의를 허용하고서는 노동계급의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당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당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선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여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당의 역사적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 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결코 그 어떤 의무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 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라는 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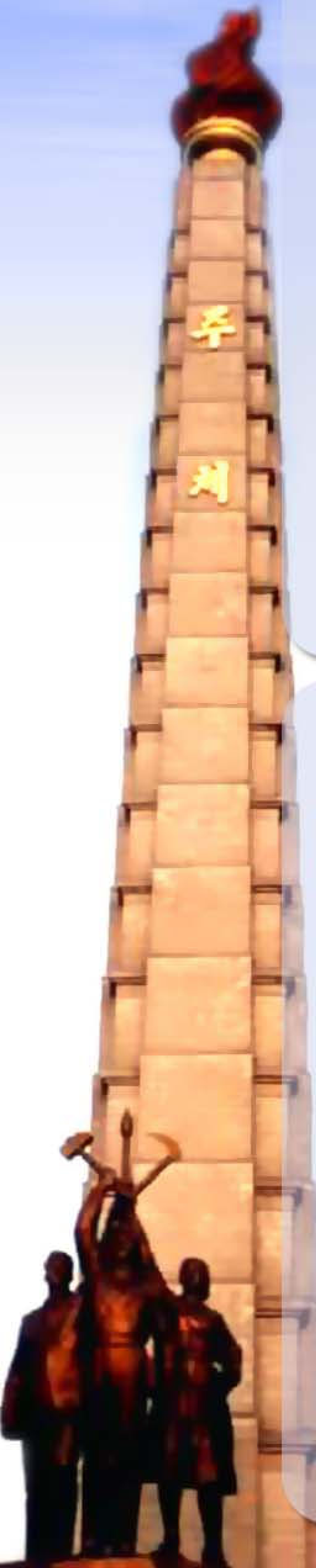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만이 공고한 통일이며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공고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하나의 사상은 다름아닌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노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강력한 것이다.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율성은 노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율성이 보장되어야 노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 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무규율성이 지배하게 되면 당이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우리 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 수 없는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으로 하여 더욱 위력하며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된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율성이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것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조직성과 규율성은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 때 더욱 강화된다. 우리의 현실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당내부생활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높여 당을 강한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위력한 방도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모두가 당조



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된 것은 당건설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불패의 당이다.

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간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연계를 맺고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 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대중과의 연계문제는 집권당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대중과의 연계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권당도 대중과 유리되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잃으면 무력해질 뿐 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군중과의 연계문제를 혁명조직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언제나 인민대중 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모든 활동에서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왔다. 우리 당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당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연계를 맺고 각계각층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동요없이 싸워 나가고 있다. 이처럼 대중과 혼연일체로 된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힘도 우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깨뜨릴 수 없다.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당에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였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정치조직인 당의 모든 활동을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할 데 대한 사상은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여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집권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사업을 행정실무화하려는 편향을 반대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였다.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세우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당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관료화의 경향이 나올 수 있다. 관료주의는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순탄하게 자라난 일군들속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원래 관료주의는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전제적인 통치방법으로서 노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기 못하고 관료주의에 물젖게 되면 아무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정당하다 하여도 그것이 옳게 관철될 수 없으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 당은 집권한 첫발부터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기본방침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롯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맞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는 참다운 길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구현되고 발전되었다. 청산리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이며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군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 사업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룩되었다.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투쟁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 투쟁인 것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적으로 강한 투쟁을 벌린 결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당사업 전반에 구현되고 당사업기풍이 일신되었다. 전당에 혁명적 기백이 약동하고 모든 사업이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는 더욱 불패의 것으로 강화되었다.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진하는 혁명적 당으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것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연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조선로동당 (2)

우리 당의 창건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 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자들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 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투쟁행로를 걸어 왔다. 1946년 8월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불패의 당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조건에서 소집된 여러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전후 당 제3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 사업에서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서고 당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1960년대에 당 제4차대회가 당건설분야앞에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이 보다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 졌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1970년대에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 섰다.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 졌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속에서 우리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나고 우리 당은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였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리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2. 마지막 모습 (2)

막내동생이 잠든 다음 어머니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였던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심각한 어조로 나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 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앓고 있는 것은 이 애미 걱정 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 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령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고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어머니의 말마디들은 격정으로 떨리였다.

내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어머니는 입술을 사려문채 다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인생관이 마디마디 집약되어 그것이 나의 온 심혼을 폭풍처럼 흔들어놓았으며 폐부에 깊숙이 새겨지는 천금같은 순간이였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씀을 이었다.

≪나무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네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걱정은 아예 말아라. 네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고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나는 즉석에서 대답을 올리었다.

≪어머니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래일은 소사하로 갔다가 부대를 데리구 남만으로, 량세봉선생한테로 곧 떠나겠습니다.≫나는 눈물이 콱 쏟아져나와 벽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구석쪽에 놓인 반짇고리를 끌어당겨 나의 군복저고리에 단추를 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서는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장례식때에 체험했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가지 않았다. 우리 삼형제들만 상복을 입혀서 장례에 보냈다. 오동진, 장철호, 량세봉을 위시한 독립군들이 우리 삼촌과 함께 수십명 령구를 따라갔지만 어머니만은 묘지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어 오월단오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머니보고 산소에 가자고 졸랐다.

어머니는 나야 거기 가서 뭘하겠니, 너희들끼리나 가라고 하면서 끝내 산소에 가지 않았다. 그대신 우리에게 제물을 꾸려주고는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술은 어떻게 부으며 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산소에 가지 않은 것은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소에 혼자서 가군 하였다. 그 관례를 깨뜨린 것은 단 한번, 리관린이 장례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송에 나타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는데 그때뿐이였다. 그때 어머니는 리관린을 묘지까지 안내하였는데 그가 너무 슬프게 조상을 하던 나머지 기절할 지경이 되였기 때문에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달리기까지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인정에 무른분이였지만 눈물이 없었다. 녀성으로서는 실로 드물다고 할만치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놀라운 천품이 나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독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들이 갈길을 재촉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 매를 대는 심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릿하게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는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늘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녀사를 보통어머니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머니가 해방후 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울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은 만나자마자 다 울었지만 그 어머니만은 울지 않았다. 내가 아들의 전우들이 많은 평양에서 살라고 했더니 장길부어머니는 아들이 고발한 원쑤들을 찾아내야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 찌그러진 싸리바자앞에서 찬공기를 쐬며 거닐고 있는데 철주가 조용히 문을 열고 토방에 나섰다. 우리는 둘이서 나무단을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주는 지금까지 공청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형이 집걱정을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노라고 하였다. 사실은 내 자신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먼저 말을 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우리는 콩비지를 맛있게 해먹었다. 나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뒤집에 있는 김정룡이를 만나러 찾아갔다. 동생들의 운명문제를 의논하고 싶어서였다. 내가 남만으로 당장 떠나가야겠는데 집일이 걱정되어 토기점골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더니 김정룡은 집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떠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동생들도 돌보고 어머니의 병구완도 잘 할테니 념려말라고 하였다. 나는 집에 나와 길떠날 채비를 하였다. 내가 신발끈을 메고 있을 때 어머니는 고리짝밑에서 5원짜리 지전 넉장을 나에게 주었다.

≪객지생활을 하느라면 돈을 써야할 때가 많겠는데 이걸 건사해라. 남자의 주머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청나라말기에 손중산선생이 외국대사관 감옥에 갇혔을 때에두 소제부한테 돈을 몇잎 쥐여주고 빠진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정작 돈을 받아들였지만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 어머니의 로고가 깃들어었는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손가락끝이 모지라도록 삯빨래도 하고 삯바느질도 해서 푼푼히 저축해둔 20원의 돈, 소 한짝에 한 50원정도식 할 때였으니 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마리는 살 수 있었고 쌀을 사서 세 식구가 일년은 살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마치 그 돈의 무게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한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토방밑에 내려선 다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 순간에 내가 명심한 것은 나의 인사가 다른 때와 류다른 점이 있어서 어머니를 울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될수록 표가 나지 않게 보통때와 다름없이 범상하게 인사를 하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 길인데.≫

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애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내가 걸음을 내디디었을 때 뒤에서 방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나의 걸음은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였다. 손에는 돈 20원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한 바퀴를 돌고 두바퀴를 돌고 세바퀴를 돌고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 머리에는 온밤 내 마음을 휘여잡고 놓아주지 않던 복잡한 상념의 쪼각들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까?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집둘레를 속절없이 돌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어제끼며 준렬하게 나를 꾸짖는 것이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무해가 되어오는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게 아니냐. 네가 장차로도 이 애미걱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다. 어머니는 그 몇마디의 말씀에 기력을 다 소모해버린 것처럼 문설주에 머리를 기대고 정과 열과 노여움이 엇바뀌는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어쩌면 천리를 걸어 팔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달음으로 림강에 가라고 떠밀어보내던 때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였다. 나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재가 될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개와 넋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는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져나올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었다. 그런 다음 동구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아래목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느고나서 고개를 돌리는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문설주를 짚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그것이 내 눈에 비쳐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저 섬약한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 아들의 가슴을 그렇게 드세게 흔들어 준 고결하고 강의한 넋이 깃들어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몸이 병마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지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수백번 체험하게 되는 그른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내 한생에 가슴아픈 추억을 남겨놓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별이었다. 나는 그후로 어머니를 만나 다시 만나뵙지 못하였다.

몇 달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였을 때 내 머리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회한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감상적인 리별은 바라지 않았으니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도 나는 그 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적어도 몇 번씩은 그런 대목에서 서게 되는 법이다. 그때마다 종이장 두께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운명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그 종착점은 서로 다른 극에 이르게 된다. 그때 어머니가 내앞에서 집걱정을 하였거나 내 마음이 탕개를 늦추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였더라면 깃을 펴고 대공으로 날을 차비를 하던 이 아들의 심중에서는 과연 어떤 파문이 있었을까.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등판을 떠난 그때로부터 나는 전우들과 함께 수십년동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들어왔다. 그후에는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세기를 해쳐왔다.

조국과 민족의 위해 그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곤경에 취할 때마다 나는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 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남만으로 떠밀어 보이면서 어머니가 하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 (끝)

일화

수령님의 환갑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민중들은 수령님의 탄생 60돌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성대히 기념하였다.

영도자님께서는 민중들의 소원대로 수령님의 탄생 60돌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하기 위하여 몸소 행사준비위원회의 성원이 되시였다.

그분께서는 197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을 모아놓고 수령님의 탄생 60돌 행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잘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탄생 60돌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뜻깊은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 지금부터 행사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수령님의 노작과 수령님의 약전출판사업으로부터 예술공연과 연회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몸소 계획하시고 조직하시고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피시였다.

영도자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돌 행사들은 대정치축제로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을 매우 검소하게 보내시였다.

전날밤 한 보좌일군이 수령님께 다음날 일정을 알려드리자 그분께서는 ≪동무들이 끝내 나를 연회장에 끌어내고야 마는군.≫이라고 말씀하시며 난처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축연회장에 나오시자 장내를 뒤흔드는 환호가 터져올랐다.

김일부수상이 축배사를 했다. 그는 수령님의 60평생이 얼마나 고귀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으로 수놓아져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국의 융성번영도 민중의 행복도 있다는 것을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전체 민중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만수축원의 축배를 드리었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용히 연탁으로 걸어나가시어 말씀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일에 동지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축하해 주니 영광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도와주고 키워주었으며 자신과 함께 굳게 손을 잡고 싸워온 전체동지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40여년동안의 혁명투쟁과정에 공산주의적 도덕에 기초하여 이룩한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단결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 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연회는 격정의 열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 60돌을 맞으시는 이해 설날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차린 성대한 연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연예인들의 신년축하공연이 있었다. 그런데 무대에 나온 여성소개자는 긴장한 나머지 수령님의 탄생 60돌을 맞는 해라고 하여야 할 것을 그만 쉰돌이라고 잘못 소개하였다. 그 배우는 자기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얼굴을 숙인채 급히 무대뒤로 들어갔다. 영도자님의 곁에 앉아있던 한 일군은 가슴을 조이며 그분의 안색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배우를 찾아 무대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얼마후 돌아오신 그분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 동무의 말대로 올해가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으시는 해가 아니라 쉰돌이 되는 해라면 얼마나 좋겠소.≫

그 순간 그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앞이 흐려와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이러한 그분이시기에 뜻깊은 연회장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이었다.

송가

노래하세 태양절

1.

겨레에게 햇빛같은 사랑 주시는
주체태양 솟아오른 봄명절일세
김일성주석님 탄생하신 날
노래하세 태양절 4월 15일

2.

만경대의 햇빛이 남해에 비껴
통일의 꽃 피어나는 봄명절일세
김일성주석님 탄생하신 날
노래하세 태양절 민족의 명절

3.

영생기원 꽃바다 노래춤속에
자주세상 펼쳐가는 봄명절일세
김일성주석님 탄생하신 날
노래하세 태양절 인류의 명절

흠모

선군 – 정의의 검, 징벌의 검

로씨야군사력사연구가 게. 이. 꼬로뜨꼬브

로씨야군사력사연구가인 원사, 교수, 박사 게. 이. 꼬로뜨꼬브가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드리는 장문의 글 ≪선군 : 정의의 검, 징벌의 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조선인민군이 오늘 어떻게 되여 불패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게 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조선의 징벌의 검은 지금으로부터 70년전 특수한 조건에서 탄생하였으며 정의의 검을 드신 분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이 초대국의 강력한 압력에 맞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것은 이 나라가 만능의 주체학설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사회주의의 길을 밝혀 주는 선군정치에 의거하고 있기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선군사상은 조선에 완성된 국가정치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선군정치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군정치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김정일**전략가의 드팀 없는 신념과 확고한 의지, 령장으로서의 그분의 안목과 예지, 백승의 령도예술, 무비의 담력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상징이라고 그는 썼다.

필자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이 지닌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우월성은 높은 혁명정신과 전투적기백, 조국과 인민,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고도의 자각성과 높은 규률성, 대중적영웅주의, 관병일치, 동지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무력대오안에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가 확고히 서 있다.

조선인민군의 타격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이겠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가늠할수 없다. 한가지 명백한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섬멸적인 타격밑에 원쑤들은 미국본토에서는 물론 우리 행성의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할것이라는것이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또다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시비질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9일에 있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이같은 망발은 남북관계를 동족관념이 아니라 대결관념에로 몰아가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교류가 진행될 때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놓으면서 앞장에 섰던 것입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이같은 책동은 남북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온 겨레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행위***계속 못된 짓만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내부에서 상부상조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미풍양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남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 슬픔을 나눴고 이웃간에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미풍양속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광복후 전기와 쌀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는 이남땅에 전기와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이북에서는 84년 수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많은 의약품들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은 1800만달러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이북에서 쌀과 시멘트, 천이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재해로 고통받는 이남 동포들을 돕기 위해 성심성의껏 마련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동포애 넘치는 후원이었습니까.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무엇이 그다지도 못마땅한지 대북지원사업까지 반대하고 있으니 그들의 안중에는 동족관념이 조금도 없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북지원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북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많이 퍼주었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농토와 대지를 북침을 위한 미군기지로 제공했고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해당한 미군유지비를 섬겨 바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북지원사업문제만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건 반북반공대결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집권하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걸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 통일의 방해자인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을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지지도가 날로 떨어진데 대해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의 눈길에 대해 똑바로 보고 모두 정계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1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11일

김연자씨 공연소식에 대한 반향
연예인 강성모

민예총산하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예인 강성모씨가 4월 11일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가수 김연자씨의 공연소식을 전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연자씨는 지난해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절을 맞아 방북해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노래를 불러 대절찬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평양무대에서 이북민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김정일**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까지 지녔다. 김연자씨야말로 복받은 대행운아이다. 우리 이남의 연예인들도 그녀처럼 평양 가서 이런 영광을 지녀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심이 천심이라고 나는 우리 소원이 풀릴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통일운동에 혼신을 다바치겠다.≫

95.5% 주한미군철수요구
바른소리센터

국민의 절대다수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최근 각계층 성인남녀 1520명을 상대로 ≪미군주둔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주한미군이 통일의 방해자, 북침전쟁의 온상, 각종 범죄, 살인귀이기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고 합의한 조건에서 미군의 주둔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4.5%는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망발 관련한 여론조사진행
문화일보

문화일보가 지난 2월 중순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관련해 각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저들의 정치적 위기해결과 무기판매를 위해 대북강경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3%에 달했으며 한반도정세를 완화하는 방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3%가 미국이 대북압력을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3%는 미국의 북침공격 책동에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시정촉구
여야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일본 고교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의 독도영유권 기술 등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내고 일본의 역사왜곡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족정기모임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것 등을 볼때 이번 교과서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후소샤 역사교과서 보다 한층 후퇴한 내용이고 극우세력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고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역사왜곡규탄
국회독도사랑의원모임

국회독도사랑의원모임은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들에 독도영유권주장 등 역사왜곡은 신군국주의의 만용에 사로잡힌 제2의 한국침략의도인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일본측에 촉구했습니다.

독도사랑의원모임은 또 그동안 독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는 물론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실세의 언론관정립을 촉구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언론관련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실세의 언론관부터 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개련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은 비록 자체에 불리하거나 불순한 일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관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꼬리잡기나 부풀리기가 아니라 모든 후보를 함께 평가하고 비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대연합론 중단 촉구

한나라당 이부영후보는 이회창, 최병렬후보측의 이른바 보수대연합론은 침체의 카드라며 이같은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부영후보는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회창후보측에서는 자민련 총재 김종필을 한나라당총재로 영입하겠다는 망언이 나돌고 있고 최병렬후보는 김종필을 만나 보수대연합을 논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부영후보는 떨어진 당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김종필과 같이 외면받는 정치인과 손잡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보수대연합은 필패할 것이며 당 전체의 지지율마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회창은 구린내 나는 몸뚱이를 오물장에 던지라

그럼 이번엔 서울대학교 학생 김성연씨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창은 구린내 나는 몸뚱이를 오물장에 던지라≫.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종풍사건≫, ≪아들병역비리≫, ≪안기부자금횡령사건≫, ≪세풍사건≫, ≪주가조작사기≫, ≪주택비리≫ 등 수많은 부정비리사건을 두고 지금 각계 민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회창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의 체포구속과 관련해 흑막 속에 묻혀 있던 세풍사건의 면모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풍사건≫이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이석희국세청 차장 등이 현대, 대우, SK 등 24개 기업에서 빼낸 돈 166억7000만원과 출처불명의 검은 돈 70억원 등 총 236억7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회창은 대선을 제놈의 대권욕과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유리한 기회로 보고 정치협잡군, 도둑놈으로써의 기질을 숨지기 않았다.

이회창은 대선이 박두해오자 앞에서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청렴결백≫을 떠들며 국민을 기만했다. 그리고는 뒤에 돌아앉아 제놈의 동생 이회성과 국세청차장 이석희, 한나라당 서상목 전 의원 등에게 지령을 주어 대선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회창의 지령을 받은 이들 세명의 모리간상배들은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 패거리들과 공모하여 대선자금모금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아이엠에프의 신탁통치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 세무조사를 명목으로 강박하거나 세금징수를 유예해주는 수법 등으로 현대, 대우, SK 등 24개 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빼어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재벌들과 개별적인 대기업 인사들에게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히 잘 봐준다는 약속을 미끼로 70억원의 돈을 가로챘다.

236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모금되자 이회창은 이중 98억3000만원만을 한나라당 공식계좌에 입금시켰다. 그리고 남은 돈 가운데서 110억여원의 검은 돈을 제놈이 챙기고 나머지 50억여원은 제놈의 동생 이회성과 졸개들에게 수고비로 던져주었던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이회창은 대선 다음해인 98년 자기가 저지른 세풍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언론을 통해 야당총재흠집내기라느니 야당모해에 의한 독재적 발상이라느니 하며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날뛰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석희, 서상목 등 ≪세풍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해외로 빼돌려 제놈의 더러운 죄행을 감추어 보려고 책동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회창이 제아무리 갖은 권모술수를 다 써보았지만 결코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었고 역적의 더러운 부정비리행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회창의 검은 돈 챙기기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세풍사건≫이후 부정축재에 재미가 든 이회창은 이번에는 제 아들 정연이까지 부추겨 대규모 ≪주가조작사기≫행위로 수백억원의 돈을 챙겼다.

그리고 ≪세풍사건≫때 이미 써먹은 수법대로 정연이로 하여금 재벌2세들에게 애비가 대통령이 되면 뒤를 잘 봐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고 그 댓가로 막대한 돈을 챙겨 제놈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였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희세의 정치적 사기꾼, 더러운 협잡꾼, 부정비리의 왕초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만일 이런 자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면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축제행위만을 거리낌없이 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은 더더욱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매장하는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이회창이 저지른 친미친일, 반통일적 매국행위와 함께 부정비리행위를 낱낱이 들춰내어 폭로규탄하는 선전전을 힘있게 벌여 대학가와 공단가, 농어촌과 성당,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이회창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도록 해야한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의 부정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감시단활동을 적극 벌여 그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수족을 단단히 얽어매야 한다. 그리고 각계 민중의 단합된 투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회창을 매장하는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정비리의 원흉 이회창은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타고 있는 반이회창불길을 똑바로 보고 스스로 구린내 나는 제놈의 몸뚱이를 오물장에 던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회창은 구린내 나는 몸뚱이를 오물장에 던지라≫ 서울대학교 학생 김성연씨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회창으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반민족반통일역적이며 부시의 전쟁하수인일뿐 아니라 도둑질만 일삼는 희세의 도둑왕초, 더러운 사기꾼이죠.

이런 자가 감히 존엄높은 이북을 없애보겠다고 얼마전에는 제놈의 졸개집단인 한나라당패거리들을 추동해서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까지 작성했는데요.

제반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화만 가져다주는 이회창역도와 한나라당반역집단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매장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0일~11일

한나라당의 반민족적인 ≪대북기본노선≫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은 ≪대북기본노선≫이라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문건을 꾸며냈다.

이회창 한나라당은 ≪대북기본노선≫에서 ≪분리원칙≫이니,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북부개발≫이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남북대결과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공표하였다.

≪대북기본노선≫은 북을 압살하려는 부시의 ≪악의 축≫망발이 계속 튀어나오고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나도는 때에 맥을 같이 하여 꾸며진 것으로서 남북사이의 협력교류를 차단하고 민족적 불화와 대결을 조장하려는 분열선언이며 전쟁선언이다.

이것으로 하여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추악한 정체는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 사회각계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의 이같은 작태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래 한나라당으로 말하면 이회창과 같은 미국의 충견들이 모인 친미매국집단이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온 짓이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그것을 충실히 집행해 오는 현지대리인으로서 분열과 대결, 전쟁의 가도를 질주해온 것 뿐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가로막아나서며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것도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고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며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다름아닌 그들이었다.

한나라당은 ≪상호주의≫니, ≪퍼주기≫니, ≪국민혈세탕진≫이니 뭐니 하는 얼빠진 입삐뚤어진 소리를 줴쳐대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각방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더욱이 이회창 한나라당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량살육무기축감≫이니, ≪검증≫이니, ≪투명성≫이니 하고 안팎을 돌아치며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이회창패거리들이 들고 나온 ≪분리원칙≫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의 체제를 허물고 북침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군부독재시기의 남북대결론의 변종이며 ≪북부개발≫과 ≪투명성≫이라는 것은 부시의 ≪악의 축≫망발에 편승한 북침전쟁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 한나라당이 악의 제국 미국의 충견, 침략의 하수인, 이 땅에 더 이상 둘 수 없는 민족반역무리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겨레≫를 비롯한 이 땅의 언론들이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냉전적 색체가 분명하고 북침통일론의 성격이 짙어 남북관계가 심히 우려된다≫고 하였겠는가.

이회창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은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미국에 잘보여 권좌를 따보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 외세와 야합하여 6.15공동선언이행을 파기하고 ≪북침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중과 겨레는 참혹한 재난을 겪게 된다.

남북관계가 군부독재시기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6.15공동선언은 7.4때와 같이 휴짖장이 되고 만다.

오늘날 재난과 불행의 화근인 이회창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은 물론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기대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전국민은 차기대권을 꿈꾸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반북,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그들을 타도매장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미제의 살육, 약탈, 파괴행위는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2)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4월 2일)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학살만행(2)

8월 10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브란스병원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들은 폭탄을 퍼부어 환자 3명을 즉사시켰으며 입원중인 환자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을 간호하던 간호원들과 다른 환자 5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8월 11일 오후 1시경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보천마을 상공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4대는 피난민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저공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마을을 불 태우고 살아 남은 주민들이 불타는 집에서 뛰쳐 나오는 것을 보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유지곡 외 23명을 죽이고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히었다.

8월 12일과 13일 2일간에 걸쳐 미군비행기 19대가 충청북도 괴산상공에 날아 들어 50여개의 소이탄과 폭탄을 투하하고 폭격을 피하여 산으로 대피하는 주민

들과 화재현장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부녀자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121명을 살해하고 376명을 부상시켰다.

8월 14일 전라북도 익산군 용안면 흥왕인민학교에 8.15조국광복기념준비를 위하여 전교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미군전투기 4대가 불의에 날아 들어 폭탄 2개를 퍼붓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학생 13명을 즉사시키고 1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8월 16일 미제공중비적들은 충청북도 청주군 북이면 석성리 학교마당에서 급히 교실로 대피하는 어린이들에게 폭탄을 떨구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학교를 심히 파괴하고 여러명의 학생들을 살해하였으며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우물에서 3명의 부녀자들이 물 긷는 것을 발견하고 기총사격으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날 미군전투기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농촌에서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농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6명을 살상하였으며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에서는 참외밭에서 참외 따는 농민 3명을 살해하였다.

8월 18일 충청남도 대전시에 날아 든 미제공중비적들은 기총사격으로 판암동 335번지에 사는 대전중학교 1학년 15살 이경무를 즉사시키고 6살 되는 그의 동생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8월 20일 미군전투기들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일대에 모여 든 2000여명의 피난민들에게 무려 2시간이나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170여명을 죽이고 100여명을 부상시켰으며 같은 면 수

곡리에서는 심육갑의 일가족 3명과 타지역에서 온 피난민 2명을, 가야읍에서는 김종곤의 부친 등 4명을,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에서는 12명을, 부림면 단원리에서는 피난민 13명을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살해하였다.

8월 21일 대전시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는 용운동 과수원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15살 난 어린 소년에게 기총사격을 퍼부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다.

이날 미군폭격기 12대와 전투기 8대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날아들어 수많은 폭탄과 소이탄을 투하하고 저공비행하면서 기총사격을 가하여 평화적 주민 33명을 살해하고 52명을 중상시켰으며 동부동에서는 어린이 28명을 포함한 676명을 살해하고 많은 주민들을 부상시켰다.

8월 22일 공중비적들은 대전시의 한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가정부인 김현숙에게 사격을 가하여 즉사케 하였으며 충청남도 대덕군 구즉면 송강리에서는 논김을 매고 있는 최인기와 그의 아들 최승은을 목표로 폭탄 5개를 투하하여 살해하고 200여평의 논을 못 쓰게 만들었다.

또한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 4대가 저녁준비를 하는 마을주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33명을 즉사시키고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8월 23일 미군폭격기들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상공에 날아 들어 무차별폭격으로 20명의 농민들을 살해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밤중에 모기불을 피우고 잠든 농가들에 폭탄을 떨구어 잠자던 농민가족 7명을 살해하였으며 24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24명을 살상하였다.

8월 25일 미군폭격기 8대는 서울시 서대문구 은평면 수색동에 1톤짜리 폭탄 10여개를 퍼부어 주민 34명을 살해하고 48명에게 부상을 입히였으며 충청북도 충주읍에 150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주민 89명을 살해하고 2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면에 날아 든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은 1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농민 68명을 살해하고 124명에게 부상을 입히었는데 사망자중에는 부녀자 39명과 어린이 1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8월 27일과 30일 미군전투기들은 서울시 용산일대와 충청북도 청주에 날아 들어 밭일을 하는 사람들과 대피호에 피신하는 사람들, 소를 몰고 가는 사람과 빨래하는 여인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다.

1950년 가을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에 날아 든 미군전투기는 산청군 미천방향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부흥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느던 16명의 피난민들에게 기총사격을 가하여 정용환의 어머니 등 4명을 사살하였으며 진주시 반성면에서는 주민들이 방공호로 들어 가는 것을 보고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해 10여명을 살해하였다.

9월 2일과 3일, 4일에 서울에 날아 든 미군폭격기와 전투기 12대는 주민들이 집결하고 있는 곳에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떨구어 79명을 살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공중에서뿐아니라 지상에서도 남반부의 무고한 주민들을 악랄하게 학살하였다.

7월 2일 남으로 쫓겨가던 미군은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 충의동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체포한 후 총부리를 들이대고 제놈들이 퇴각하는 곳으로 끌고 가면서 아들, 딸들을 따라 나온 늙은 부모들을 총창으로 무참히 찔러 죽이었다.

7월 8일 미군은 기관총 5정을 자동차에 싣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매천리에 달려들어 부락주민들에게 피난시켜 준다고 하면서 산으로 끌고 가 52명을 학살하고 19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7월 19일 인민군대가 충청남도 대전시 근방에 육박하자 이에 바빠 맞은 미군은 이날 아침 6시경부터 중동, 정동, 대흥동, 인동 등 대전시의 각 지역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740호의 살림집과 35개의 기관건물, 140개소의 평화산업시설, 9

신천에서 새로 발굴된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의 유해와 유물들

개의 학교, 12개의 병원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날 미제침략자들은 대전시 판암동 623번지에서 사는 68살 여신용과 그의 아들 12살 여남복이 판암동 한 철길굴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살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의 사이에 미제침략자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형무소와 유치장에 구금하였던 1146명의 애국자들을 살해하고 충청북도 충주에서는 시민 739명을 체포하여 이원국민학교 교사에 가둔 다음 7월 5일 학교 뒤산에서 23명을 학살하였으며 나머지 716명은 손발을 결박하여 트럭에 싣고 가다가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앞산 등지에서 10명 혹은 15명씩 묶어 놓고 기관총으로 학살하였다.

충청남도 공주에서도 미제야수들은 600여명의 시민을 체포하여 산골짜기에 몰아 넣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택에서 600여명, 안성에서 500여명, 부여에서 2000여명, 조치원에서 158명, 대전에서 8644명, 청주에서 2000여명, 전주에서 4000여명, 군산에서 400여명, 공주에서 600여명, 안양에서 400여명, 충주에서 2060여명을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 9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지역에 다시 기여 들어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한 미제야수들은 첫 하루동안에 13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데 이어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기간에 5만5900여명의 주민들을 ≪공산분자≫로 몰아 투옥학살하였으며 인천시 금곡동지구에서만도 1500여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2700명의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서울에서 9월 28일부터 3일동안에만도 3만88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9월 30일 미국놈들은 서울 전차 차고 노동자 600여명을 ≪부역자≫라는 혐의로 체포하여 야수적 고문을 하던 끝에 30명을 즉석에서 학살한데 이어 직맹위원장 최금목과 123호전차 여차장을 창으로 가슴을 찔러 죽이었다.

1951년 1월 4일 미제야수들은 경기도 ≪경찰부≫가 차지하고 있던 창영국민학교에서 4 8명, 18일에는 동인천≪경찰서≫ 창고에서 422명, 인천≪경찰서≫에서 28명을 학살하고 불태워 버리었다.

양동, 양신, 금포, 양촌에서도 애국자들과 그 가족 400여명이 학살되었다.

1950년 여름부터 1951년 여름까지 전쟁 1년동안에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희생된 남조선인민들의 수는 초보적으로 조사확정한데 의하더라도 무려 100만여명에 달한다.

(내일 계속)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 ~10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11일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 기념행사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조선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10일 농업근로자들의 맹세모임이 력사의 땅 청산리에 모신 주석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석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려는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변의 의지가 과시되였다.

이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평양시 학생청년들의 덕성이야기모임 《수령님과 대학생》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넘치는 이야기와 노래가 절절히 울려 퍼졌다.

한편 이날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조선우표전시회 개막식이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주석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등을 보여주는 3, 000여종의 우표들이 전시되여 있다.

청춘거리의 탁구경기관에서는 이날 《만경대상》체육축전 개막식이 있었다.

축전기간 100여개 체육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근 50종목의 경기들이 평양과 지방들에서 진행되게 된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1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주석께서 이 력사의 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돌아 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손님들은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고향집주변에서 기념식수를 하였다.

한편 조선주재 무관단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중앙사진전람회장을 참관하였다.

김련자의 초대공연 진행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의 초대공연이 10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정하철, 김용순, 김중린비서들과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 강능수문화상 등 관계부문일군들, 예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인민의 따뜻한 동포애적 관심과 기대속에 민족의 노래, 통일의 노래를 불러 깊은 인상을 남긴 김련자가수는 조선민족이 좋아 하는 민요들과 민요풍의 노래들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출연자는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간절한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새로 창작된 노래 《우리는 하나》를 진실하고 감동 깊게 형상하여 관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련자일행 《아리랑》의 일부 장면들을 관람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이 9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총 관통단계에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장면들을 관람하였다.

작품을 보고 난 김련자는 《아리랑》에 대하여 말로만 들어 오다가 오늘 직접 보니 너무도 굉장하고 황홀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천명이나 되는 출연자들의 하나와 같은 동작은 마치도 기계가 움직이는것만 같다.

조명설비들도 방대하고 작품의 예술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잘 배합되여 있다.

특히 배경대는 깜짝 놀랄정도로 훌륭하다.

1만 8, 000여명의 학생들이 어쩌면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한마음이 되여 일치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

이 훌륭한 작품을 남조선과 일본사람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꼭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

지휘자 김호식은 《아리랑》을 보면서 너무도 감동되여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로서는 극상 10여명의 연주가들을 지휘하는것도 힘든데 10만명의 출연자들을 움직여 이 훌륭한 작품을 지휘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재능에 탄복할뿐이라고 말하였다.

연주가 고노 미쯔노브는 배경대와 바닥, 경기장상공을 비롯한 거대한 공간을 황홀경으로 꽉 채우며 립체적으로 진행되는 이 작품은 인류문화예술의 최고절정을 이룬다고 말하였다.

연주가 구메 히로또는 매 장면들이 그야말로 완벽한 《아리랑》을 보면서 조선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모신 우리 인민과 군대는 필승불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림룡만부회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과 군대는 필승불패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장군님이시야말로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려 오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끊임 없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필승의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끌어 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령장을 모셔야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자랑 높이 떨칠수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언제나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

주석의 풍만한 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풍만한 정서의 체현자이시다.

주석께서는 노래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승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노래를 열렬히 사랑하시였다.

《사향가》는 주석께서 제일 즐기신 노래이다. 항일혈전의 나날에는 물론 80고령에도 재미교포(손원태)와 함께 감회깊은 추억을 더듬으실 때도, 당과 정부의 간부들앞에서도 자주 이 노래를 부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싸우는 전사들의 청을 받으시고 《그리운 강남》을 들려 주시며 그들이 가슴속에 불 타는 조국애를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 가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가요 《적기가》에서 힘을 받으시며 겹쌓이는 시련을 이겨 내시였다.

주석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황금이삭 설레이는 논벌을 보시며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라고 코노래도 부르시고 동해어장에서 굉장한 물고기떼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전화기를 드신채 《떠나 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 올 땐 배전에 넘친다》라고 흥겨운 민요가락도 넘기시였다.

때로는 정원에서 집무의 여가시간에 하모니카를 능란하게 부시여 부관과 간호원의 재청도 받으시군 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시가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50돐을 축하하여 쓰신 송시 《광명성찬가》는 혁명적 시가창작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

명산의 절경을 주옥 같은 시어에 담아 노래한 명시 《묘향산 가을날에》도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 애창되고 있는 주석의 친작이다.

참으로 주석은 다정다감한 위인으로 온 나라 인민의 생활과 마음속에 영생하고 있다.

만경대

만경대는 조선의 수도 평양의 서남쪽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사방 40키로메터 안팎의 일만가지 경치를 다 볼수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동방조선의 으뜸》으로 일러 왔다.

바로 이 만경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였다.

그리고 부모님의 혁명적인 영향을 받으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만경대에는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과 어린시절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들메나무,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던 썰매바위, 군함바위를 비롯한 사적물들과 사적지들이 보존되여 있다.

또한 주석의 혁명일가분들의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물들과 사적지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 있다.

만경대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의 성지로, 마음의 고향으로 되고 있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 오른 성지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만민의 뜨거운 지성에 의해 뿌리 내린 갖가지 진귀한 나무들과 꽃들이 이곳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 주고 있다.

아름다운 4월의 꽃계절에 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만경대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다.

지난 50여년간 만경대를 방문한 국내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수는 근 1억 8천만명, 외국인들은 190여만명에 이른다.

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겠다.

태양절에 즈음한 재중동포들의 기념보고회

태양절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이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보고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조용환회장을 비롯한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용환회장의 보고가 있은 다음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영화를 감상하였다.

태양절기념집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3일과 4일 단마르크, 벌가리아, 체스꼬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하늘같이 믿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체히－모라바공산당 중부체스꼬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20세기의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도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한편 이날에 즈음하여 3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조선의 4대제일주의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조미회담은 조건이 마련되면 진행되게 될것이다

조선 외무성대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조미회담재개에 대한 일련의 억측보도들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일부나라들의 보도계에서 조미대화의 재개문제와 관련한 제나름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조미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의 립장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다.

대결원점으로 돌아 간 현 조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조미회담은 필요하며 또 어느 때 가서든 조건이 마련되면 진행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환경이 구비되였다고 볼수 없다.

조미대화의 재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것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대화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한 립장에서 대화하자는것이 사실이라면 조미대화가 재개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란대사 연회 마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 잘랄렛딘 나미니 미얀지가 10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대사는 연설에서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력사를 변혁시킨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그이는 조선인민을 외세의 지배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안겨 주신 반제투쟁의 기치, 반외세투쟁의 걸출한 사령관이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사이의 깊고도 훌륭한 관계를 마련하신것으로 하여 이란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기시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과 이란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의 고위지도자들과 맺으신 친분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검증된 관계로서 오늘도 두 나라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계속 좋게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친선적인 이란인민이 존경하는 카메네이이슬람교지도자각하와 카타미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정치적안정을 공고히 하면서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문명하고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과 회담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사이의 회담이 11일 평양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위원장 욘 피터슨을 단장으로 하는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 아르메니아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5일 조인되였다.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조선정부문화대표단 단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아르메니아 문화, 청년 및 체육성 부상이 협정문에 수표하였다.

조선녀자축구선수들 제1위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이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알베나컵≫국제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제1위를 쟁취하였다.

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로므니아팀을 5 : 1로, 벌가리아팀을 4 : 0으로, 우크라이나팀을 3 : 0으로, 로씨야팀을 2 : 1로 이긴 조선선수들은 성적이 높은 로씨야팀과 결승경기를 하게 되였다.

결승경기에서 조선선수들은 3 : 0으로 승리하였다.

김련자일행이 떠나갔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왔던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이 11일 평양을 떠나 갔다.

비행장에서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인 문화성 송석환부상,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영화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일행을 전송하였다.

일행은 체류기간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평양지하철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종합련습과 민족가극 ≪춘향전≫을 관람하였다.

자립적기계공업

태양절(4. 15)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게 돌이켜 보고 있다.

그중에도 나라의 자립적인 기계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주석의 로고는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

광복직후 조선의 기계공업은 령이나 다름 없었다. 그것마저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에서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기계공업은 전후 비로소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선견지명의 예지를 지니신 주석께서는 대국주의자들의 ≪통합경제론≫을 배격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그 어떤 파동에도 끄떡 없는 자립적인 기계공업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후 불과 5년이라는 기간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불도젤과 기중기가 생산되였으며 련이어 8m타닝반, 전기기관차 등이 만들어 졌다.

주석께서는 온갖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기계가 기계를 새끼치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기적을 창조하시며 단 14년동안에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시였다.

이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기계공업이 있어 조선인민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도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 내고 인공지구위성까지 쏘아 올리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게 되였다.

세기를 이어 계승되는 동지애의 위대한 전통

≪로동신문≫ 11일부는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불멸의 기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작에서 동지애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밝히시고 동지애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였으며 동지애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신문은 로작발표 20돐에 즈음한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천품이며 혁명철학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이다.

나는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라는 동지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시고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분이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동지애는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만능의 열쇠, 승리의 보검이다.

오늘 조선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인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온 사회가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대한 동지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동지애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낳은 근본원천으로, 우리 사회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킨 생명수로 되고 있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사상이 온 사회에 확고히 지배하고 있는데 조선사회의 생명력과 공고성, 그 밝은 전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서의 불멸의 공헌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11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11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을 뿐아니라 세계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어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으며 인류의 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중요한 업적은 무엇보다 먼저 세계혁명을 연합된 국제자본의 철퇴를 끊어버리고 전 세계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전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대하고 심화발전시키신 것입니다. 선행단계에서의 세계혁명은 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국제자본을 반대하고 세계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지향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운동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을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셨습니다.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계혁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이며 탁월한 활동에 의해서 오랜 세월 국제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어 오던 세계혁명은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그 폭이 비상히 확대되고 심화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혁명운동의 폭이 확대되고 심화발전된 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세계혁명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착취근로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뿐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때려부수고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이미 쟁취한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투쟁,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온갖 예속과 지배를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독립,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운동도 다 포괄하는 폭넓은 혁명으로 확대발전된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세계혁명이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혁명운동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나가는 혁명으로 전환된데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은 선행시대와는 달리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또 민족국가들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중요한 업적은 다음으로 세계혁명이 자기발전역사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이론에 의해서 전개되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역사적 조건에서 유물사관의 원리에 기초해서 제기한 선행한 혁명이론의 제한성과 일면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세계혁명에 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시대의 요구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세계혁명에 관한 주체의 이론을 완성된 혁명학설로 정립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혁명에 관한 주체의 이론을 완성된 혁명학설로 정립하심으로써 우선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최종목표와 당면한 투쟁과업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본질을 전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히시어 세계혁명의 최종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전략적 목표들을 뚜렷이 명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세계혁명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어 세계혁명의 최종목적과 당면한 전략적 과업문제에 관한 명백한 해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혁명에 관한 주체의 이론을 완성된 혁명학설로 정립하심으로써 또한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과 그 승리의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세계혁명의 주체와 그 강화방도가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는 매개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매개나라 혁명이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혁명이 발전한다는 합법칙성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그이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을 세계혁명의 주체로 새롭게 규정하시고 세계혁명역량이 반제공동전선과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할 데 대한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해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해서 세계혁명승리를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으며
인류의 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업적은 다음으로 매개나라 당과 인민이 주체성을 구현해서 자기나라 혁명을 잘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혁명을 발전시켜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하는 주체시대의 변화된 현실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혁명투쟁에서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해서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서 국제적 임무수행에 충실하며 세계혁명을 다그쳐나가는 독창적인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개 나라들에서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어떤 원칙에서 결합시키며 어떤 방식으로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언제나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라는 입장에 서시여 조선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시여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조선혁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이른바 민족주의니 고립주의니 하면서 비방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벌리시어 조선혁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세계혁명역량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미제와 반동세력이 우리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던 엄혹한 시기에 사실상 우리 혁명만 지켜내자고 해도 어려웠지만 그 역경속에서도 세계혁명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생, 재건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으로 ≪평양선언≫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운동을 새로운 기초위에서 재건하고 세계혁명을 계속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세계혁명을 전 세계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시고 세계혁명의 과학적인 지도이론을 마련하셨으며 매개 나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과정에 세계혁명을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혁명경험을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역사적 공적으로 해서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세계혁명의 탁월한 영도자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의 수령들의 저서발행정형을 보면 모두 30개 나라 안팎인데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은 108나라에서 63개의 민족어로 도합 2,455만 5600여부가 출판되었습니다. 주체58(1969) 4월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 보급하고 구현하기 위한 첫 주체사상 연구조직이 결성되고 주체67(1978) 4월 일본 도쿄에서 *********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개 나라에 10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었습니다. 세계 70여개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180여개의 최고훈장과 메달을 수여했으며 170여개의 나라의 당, 국가, 정부수반을 비롯한 진보적 인민들이 16만 5,700여점의 지성어린 선물을 그이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480여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 쌓아오신 혁명업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더불어 세계 진보적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덕이 펼쳐놓은 참다운 인간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이라는 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보위의 ≪국민인권테러 시도≫규탄 기자회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의 인권을 테러하려는 것인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95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월드컵을 위해 안전장치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상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관(불교인권위)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거듭 밝혔듯이 ≪월드컵을 위한 여러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일 뿐만 아니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접촉한 다수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에 의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는 상황에 대해 경악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살리기 법률≫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광렬(인권실천 시민연대) 간사도 ≪그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을 일부 수정을 하기도 했지만 테러 개념의 모호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에 나서 ≪이 법안이 정보위에서 통과되면 그들은 역사에 반역행위를 한 것≫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나쁜 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노조, 민주노동당 대표의 규탄연설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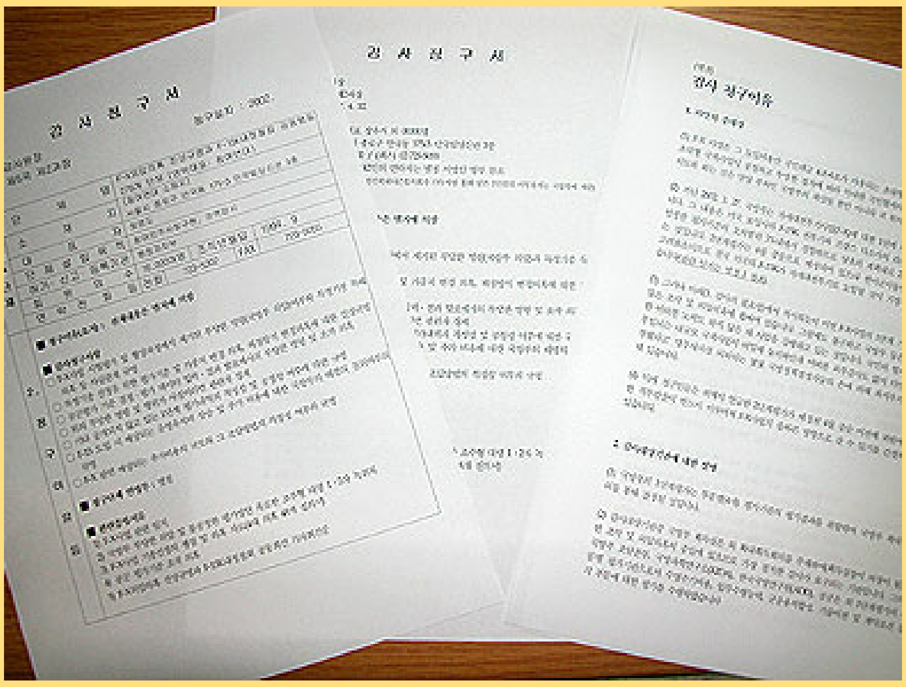
한편, 이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투쟁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문 전달을 취소했다.

하지만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며,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5~18일까지 국회 앞 단식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영등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 무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간 의견통일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12

279개 사회단체, F-X 특별감사 청구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1시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감사원에 단체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F-X공동행동은 감사청구사항으로 ▲F-X 외압의혹 ▲평가기준, 배점방식 변경에 대한 의혹 ▲1단계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 ▲F-15K 도입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 상승 및 추가비용에 대한 국방부 해명의 진위여부 ▲F-X관련 예상되는 추가비용의 규모와 그 조달방법의 적정성 등의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F-X공동행동은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지난 3일부터 진행해왔던 범국민 가두서명과 사이버서명을 통해 확보한 43,442명의 국민서명과 관련증빙서류로 국방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1,2차 녹취록과 4대 의혹 48개 질의서로 되어있는 F-X사업의 의혹자료를 함께 제출해 F-X사업 의혹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F-X공동행동은 단체감사청구서에서 밝힌 감사청구 이유를 통해 ≪국민의 혈세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비밀에 둘러싸인 채 국방부 몇몇 관계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2단계 평가가 예정되어있는 4월 중순이전에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특별감사청구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감사원이 지난 3일 자통협에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이어 10일도 안돼 4만여명의 국민서명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며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여부와 방법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F-X공동행동은 오늘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외에도 자통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 민원실앞에서의 농성과 1인시위, F-15K 내정철회 1천인 선언운동을 통한 신문광고 게재 등을 통해 F-X사업 반대활동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F-X사업 2단계 평가를 앞두고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F-X사업 전면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국방부는 F-X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2단계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국방부가 국민여론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2

한총련 집회신고서 제출 경찰저지로 끝내 무산

11일 오후 2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이하 도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앞에서는 때아닌 실랑이가 벌어졌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도경을 찾았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서 빚어진 이날의 ≪소란≫은 어떻게 빚어진 것일까. 이날 ≪소란≫의 발생 초기부터 벌어진 일들로 거슬러올라가 보자.

오후 2시경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학생 20여 명은 도경을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이들이 이날 도경을 찾은 것은 오는 12일부터 영남대학교(경북 경산시 소재)에서 열리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대회와 관련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한 것. 이날 준비해온 집회신고서는 총 52건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시기별, 장소별 신고서 총 신고서 제출자도 각각 다른 건이다.

이날 신고서 제출은 지난 9일 대구경북지역 각계인사 총 302명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평화적인 행사를 보장하라≫며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관할 경찰기관인 도 경찰청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좌절된 것에 항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들이 집회신고서 제출은 도경 청사에도 이르기 전, 미리 대기해 있던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한다. 경찰은 봉투에 쓰여진 문구를 문제삼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흰 봉투에 ≪한총련≫ 관련한 문구가 있으니깐, 경찰로 봤을 때는 집회를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로막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측이 ≪집회를 할 의사도 없고, 점거할 생각도 없는데 왜 경찰이 막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해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20여 분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 측은 도경 청사로 향하는 길을 터주었고, 단체 대표들과 학생들은 청사 입구에까지 이르는 ≪고개≫ 하나를 겨우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내 청사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병력은 이들의 걸음을 다시 한번 멈춰세우고 만다.

다시 경찰이 가로막자 단체 대표와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신고서 제출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병력을 동원해서 막는 이유가 뭐냐≫면서 따지고, 신고서 접수를 받는 민원실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집회신고서를 낼 거라면 모두 거둬서 한꺼번에 관계자에게 전달해줄 것≫이라며 청사 출입만은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자의 말에 시민단체측의 한 관계자는 ≪한 명이 집회신고서를 내든, 20여 명이 별개의 신고서를 내든 경찰이 집회신고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항의했다. 또 ≪신고서 제출을 막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대라≫면서 따지고, 해명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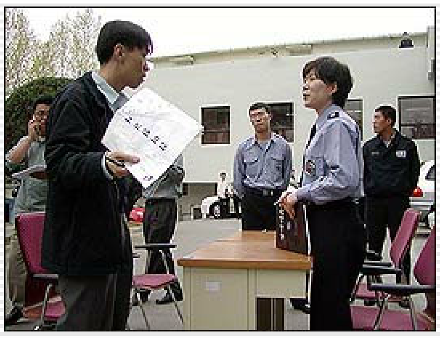
한 시간 가량 지난 오후 2시 55분쯤 민원실 접수가 어려워지자 단체 관계자와 학생들은 ≪경찰이 오히려 병력을 동원해서 민원접수를 막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로 빚어질 경찰의 폭력시위 조장을 책임질 수 있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 선회가 이루어지지 않자 입구를 메우고 있는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에도 경찰 측은 ≪경찰 입장으로는 점거농성 등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청사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 ≪정당한 집회신고서 제출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도경 출입금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 측은 오히려 ≪굳이 모두 다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면 민원실 책상을 빼주겠다≫면서 ≪우리가 민원인의 편의를 더 봐주겠다는 뜻 아니냐≫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측은 민원식 책상 하나와 의자를 빼놓고는 ≪야외 민원접수≫에 나서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쪽은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말은 하면서도 경찰이 오히려 민원인 접수를 막고 있는 처사에 수긍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경찰이 정당한 신고서 제출을 막는 상황에서 그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냐≫면서 반발했다.



한편 오후 3시 30분경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은 지난 9일 무산된 면담신청을 도 경찰청장이 아닌 경무과장과 갖기 위해 청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40분에 걸친 면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면담자들도 청사를 빠져나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범민련 대구본부 한기명 의장은 ≪경찰청장, 차장 등도 모두 자리를 비우고 면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무과장은 ≪자기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얘기했다≫면서 ≪다만 ≪정부에서도 한총련을 과거와는 달리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집회신고서 제출이라는 목적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경연합 이영기 집행위원장은 ≪경찰들은 줄곧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경찰의 방해로 이미 13일 집회는 불법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결국 경찰이 한총련의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빌미를 만들어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오후 4시 20분 경 단체 대표와 학생들은 가지고 온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채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단체 대표들은 이날 집회신고서 제출을 경찰병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면서 ≪고발조처 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한편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영남대학교에서 12일 오후 5시부터 전국 각 대학의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야제를 시작으로 13일 본 대회를 통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 올 한 해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오마이뉴스 2002/04/11

프리처드 특사 5월 방북

임동원 특사의 평양 방북 이후 이북의 전방위 외교가 한반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특사와의 회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미국, 일본과의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 한반도특사인 프리처드는 11일, 다음 달 이북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前주한 미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래그가 6-9일 민간인 신분으로 이북을 방문하여 미국의 입장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이후 그는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여 ≪이북이 현재의 테러 상황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말해, 양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에 앞서 그는 평양 방문 직후인 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큰 환대를 받았으며 이북 외교관리와 고위 군인사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의 이북과의 대화 재개 신호도 이어져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8-9일 동경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회의(TCOG)에서 미국과 일본측은 임 특사의 방북 결과를 지지하기로 하고 이북과의 대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워싱턴포스트도 이 회의의 초점이 임특사의 방북 결과와 이북의 대미, 대일 대화 재개 의지에 맞춰졌다고 9일 보도했다.

이북은 클린턴정부 말기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서방외교를 전개하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우회접근을 시도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도 이북의 이런 외교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제 이북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방위외교의 방향을 한반도로 집중시키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프리처드 특사의 5월 방북은 이달 하순 있는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유엔채널을 통해 프리처드 특사의 방북 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북의 입장에서도 김대중정부의 중재역할을 적극 수용하여 부시정부와의 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간 많은 문제를 둘러싼 큰 의견 차이로 대화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처드의 방북에서 양국은 향후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위한 원칙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뉴스 2002/04/12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법해석상 무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지난 87년에 출범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가 가지고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집행체제를 갖추기 위해 93년, 고려대학교에서 제1기 출범식을 가진 것을 시작, 올해로 10년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단체이다.

하지만 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의 대중적 지지기반의 약화는 물론, 각 대학 총학생회의 탈퇴로 이어지는 과정속에서 결국 97년, 검찰은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상의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했다.

또한 98년 5월, 대법원은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단체라고 볼 수 없고 정권타도와 반국가단체인 이북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부합하는 강령을 채택,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이적단체이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이미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을 통한 한총련 자체가 ≪이적단체≫라고 규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 판결은 결국 검찰에게 ≪한총련 와해≫ 계획의 당위성을 부여했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법적근거를 제공했다.

반면 이후 각계 인사·단체들의 헌법적 논쟁(사상과 표현의 자유측면)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케 했다.

검찰이 제시한 한총련의 이적성 근거는 첫째,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사회로 규정, 이에 따른 반미투쟁 전개.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셋째, 연방제 통일방안지지 등(이후 01년, 한총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강령을 변경)이다.

이 모두가 이북측 주장과 동일하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반국가단체인 이북의 강령을 우리사회에 찬양·고무·선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북을 이롭게하고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원 역시 ≪한총련은 이북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결국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하는 이북의 투쟁목표 및 노선을 근간으로한 이적단체이다≫라고 판시한다.

이적단체 규정의 문제점

하지만 이런 검찰과 법원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자의적인 법해석을 근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한총련이 이북이 내세운 주의·주장과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반국가단체인 이북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우리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 제21조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자유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약할 수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국제인권규약)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헌법 제37조 2항을 남용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의 근본정신이 ≪인권보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내세워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결국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이북과 같은 주장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이북을 이롭게 한다하더라도 우리사회에 대한 법익침해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아닌이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일이어야 했다.

이미 지난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라는 볍리를 내세운바 있다.

이와 관련 장호순 교수(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시 기존의 헌재가 내세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한편, 검찰은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래 일괄되게 제9기 한총련까지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죄 내지 이적단체 가입혐으로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기소권을 남용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우리대학 박홍규 교수(법학부)는 ≪학생들의 자치투표로 결성된 학생회 임원들을 구속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총련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검찰과 법원의 ≪한총련=이적단체≫라는 규정은 법해석상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지금의 한총련은 많은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의 한총련 과제에 대해 박교수는 ≪한총련은 맹목적인 상명하달식 체계가 아닌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변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며 ≪한총련은 한국학생 운동의 중심이였고 앞으로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도 오늘의 대학과 대학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사법기관의 열린자세 등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한총련 스스로 약화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곧 제10기 한총련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이 정부측의 열린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규일기자

유뉴스 2002년 4월 12일

F15 ≪불공정≫, ≪철회해야≫ 88%

FX사업관련 공군사관학교 등 충북지역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불공정하다!≫, ≪선정과정 철저히 공개하고 연기하라!≫

이는 약 5조 8천 억원(선정 후, 운영비용까지 합하면 십수조원)이 투입되고, 4월 중순 2차 선정결과 발표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차세대전투기(F-X, Fighter-X) 사업 과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공군사관학교, 청주대, 청주교대, 충북대, 충주대, 한국교원대학교 등 충북지역 6개 대학의 6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여론 실태가 파악되었다.

설문지는 ≪선정과정의 공정성≫, ≪남은 F-X 사업 과정≫, ≪F-X도입의 시기성≫, ≪가장 중요한 F-X 선정기준≫, ≪선호하는 전투기 기종≫ 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정과정의 공정성≫(635명 응답)에 대한 설문에서는 ≪공정했다≫ 19명(3%), ≪공정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197명(31%), ≪공정하지 않았고, 철회되어야 한다≫ 362명(57%), 기타 57(9%)명의 답변을 보였다. 기타 답변에서 ≪서러울 뿐이다≫,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는 미국 시다바리다≫, ≪눈칫밥 먹는 비참함≫, ≪모른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까지 합하여 90%를 초과하는 대학생들이 F-X 선정과정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F-X 선정과정≫(632명 응답)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15명 2.4%), ≪…선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공개와 사업연기가 필요하다≫ (427명 67.5%), ≪대통령의 승인 거부 요청을 위해 범국민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147명 23.2%), 기타 (43명 6.8%)의 답변이 나왔다.

이와 같은 여론은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철저한 공개 및 연기와 범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에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힘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F-15로 결정하더라도 많은 것은 미국으로부터 얻어와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F-X사업에서 선정되는 전투기를 타고 조종하게 될 공군사관생도들의 답변만 모아놓고 보자.

≪선정되어야 할 전투기≫에 대한 설문에서 ≪라팔(프랑스 다소)≫에 81%의 생도가 답하였다.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공정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공정하지 않았고 철회되어야 한다≫에 각각 56%, 6%가 대답했다. 과반수 이상의 공사 생도들이 이번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F-X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 대한 공개와 사업연기 필요≫와 ≪대통령의 승인 거부 요청…≫에 위 문항과 같은 56%, 6%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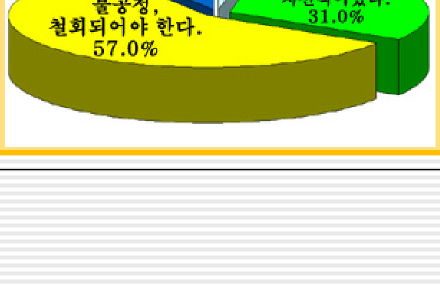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설문 양상은 일반 대학생들보다는 높지 않지만 공군사관생도 역시 F-X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공군사관생도의 ≪이 사안(F-X 사업) 대한 내부 지침에 따라 공사생도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국민의 입장에서 설문에 응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대부분이 공사생도의 신분에서 설문에 응하기를 거부하였다.

설문에 응한 몇 대학생은 ≪그 돈으로 등록금이나 대줘라≫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번 선정과정의 공정성의 회의를 품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차세대전투기 구입 비용 5조 8천억원은 올해 국가 예산 111조원에 비하면 5%를 상회한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보다 많은 것은 물론, 교육예산의 약 10%에 그치는 전국 대학교육예산의 200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 셈이다.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오광진간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방부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F-X 평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누가 생각해도, 그 누가 평가하고 판단해도 선정 되서는 안 되는 기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부조리한 정부 사업에 납세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대학생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 조차 무시한 채 국방부에서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차세대 전투기 내정 철회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며 범국민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희기자

유뉴스 2002/04/12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7)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3

둘째 갈래의 운동은 남(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투쟁이다.

남(한국)은 지난 시기 반미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생각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열풍이 부는 중심지로 바뀌고 있다. 남(한국) 일반대중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은 고양되고 있으며, 그 기반위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반미투쟁은 더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번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던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1993년 7월 10일 클린턴이 방한하였을 때는 미국이 북(조선)을 겨냥하여 전쟁도발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시기였는데도 남(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투쟁은 그리 위력적이지 못했으며, 남(한국) 일반대중에게서 반미자주의식의 열기는 느끼기 힘들었다. 당시 남총련 학생들 5백여명이 광주의 아메리칸 센터앞에서 시위투쟁을 벌였고, 서울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성원 1천여명이 시위투쟁을 벌인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에 내걸었던 투쟁구호도 ≪쌀수입 강요하는 클린턴 방한 결사반대≫라는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남(한국)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미자주화운동에 참가하는 범위도 매우 폭넓게 대중화되었고,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정확하게 내걸었으며, 시위투쟁의 양상도 더욱 치열하게 변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반미투쟁은 부시 행정부에게 실로 위협적인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2002년 2월 21일자는 부시 방한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서울 현장에서 장문의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적었다. ≪지난 군부통치시기에 일어났던 반미시위들은 이번에 부시의 방한에 즈음하여 일어난 비난공세처럼 격렬하지 않았다. 오늘의 시위는 최대의 반미시위였으며, 부시의 방일을 환영했던 도쿄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한(조선)민족의 반제 자주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과 남(한국) 민족민주운동권의 반미자주화운동이다. 이 힘의 주체는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중심축인 미국을 겨냥하여 각기 다른 방향에서 위협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한(조선)반도에서 전개되는 반제자주역량의 공세에 떠밀리며 차츰 곤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생산, 보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는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대량파괴무기를 동원하여 전 세계를 통제・지배하는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동량구조(棟樑構造)다. 반제혁명국가들과 반미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게 될 때, 또는 대량파괴무기가 미국의 하위동맹국들에게 확산될 때, 현대 제국주의진영은 치명타를

➡

광고

추천영화 10선

주체91, 4월 8일

이남의 애국적 청년운동가들의 기관지인 ≪통일여명≫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축하하며 다음의 영화 10편을 추천합니다. 이 영화들은 이미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좋은 영화들로서 신입생들이 우리 사회와 지난 역사의 단면을 생동감있고 쉽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영화들을 통해 더욱 진보적이고 예술적인 영화들을 선별하고 보람있고 값있는 대학시절을 보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10편의 영화들은 진보성과 예술성, 신입생여러분의 정서, 그리고 구입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영화들에게서 아쉬움을 느끼는 신입생여러분은 학생운동선배들의 도움을 얻어 더욱 진보적이고 예술적인 영화들을 구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이북영화들을 감상하기 바랍니다.

입게 된다. 만일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어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는 경우,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반제혁명국가들과 반미국가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힘들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제각기 독자노선을 걷게 될 것이다.

만일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이 반제혁명국가들, 반미국가들의 강한 군사력에 의하여 억제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구축해놓은 자기의 신식민지체제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자기를 추종하던 하위동맹국들이 이탈하는 경우, 현대 제국주의진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는 단순히 군사부문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21세기에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존폐문제가 걸려있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21세기초에 부시 행정부는 지금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현대 제국주의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가 존폐의 위기상황으로 몰려가게 된 근본원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군혁명전략으로 영도하여 세계 정치무대에 반제군사강국으로 등장시켰다. 북(조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도발책동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이 대량파괴무기를 독점함으로써 구축・유지해온 현대 제국주의진영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 부시 행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와 남(한국) 지배권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인 양자택일의 갈림길로 떠밀려가고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은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을 발휘하여 부시 행정부를 양자택일의 벼랑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남(한국) 지배권을 장악・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면 남(한국)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제국주의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워싱턴에 포진하고 있는 제국주의 전략가들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 선택의 벼랑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이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유지하는 전략문제를 놓고 처해 있는 곤경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닉슨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이 베트남전쟁에서 퇴각하는 전략문제를 놓고 처해 있었던 곤경과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30년 전의 미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중미 정치협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워싱턴을 주름잡았다는 제국주의 전략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당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과 정치협상을 벌이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 기밀해제된 미국의 비밀자료에 의하면, 1971년 7월 9일에 있었던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비밀회담에서 키신저는 북베트남과의 종전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과 베트남전쟁이 끝나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철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고, 그와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로서 반드시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 회담에서 키신저는 ≪우리의 입장은 남베트남에서 어떤 특정한 정부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보다 시피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 전복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 그 정부가 전복되더라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2002년 2월 28일자) 키신저는 1974년에 당시 대통령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에게 제출한 1급 비밀 비망록에서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1977년 초까지 대만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하면서 그와 더불어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1999년 5월 15일자)

1971년에 있었던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비밀회담 이후의 동아시아정세는 그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정치협상에서 ≪베트남에서의 평화재건 및 전쟁종식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자마자 3월 29일에 ≪미국-남베트남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남베트남 지배권을 포기하였고, 6년뒤인 1979년에는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대만 지배권을 포기하였다.

남베트남 지배권의 포기는 종전과 평화, 자주와 통일로 이어졌고, 대만 지배권의 포기는 미국과 대만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대만에 주둔시켰던 미군을 1979년안에 모두 철수시키고, 미국이 대만과 맺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시키는 조치로 실행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는 과정과 중미 수교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미 수교협상에서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 그 약속대로 포기하였던 것이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기본열쇠 (3)

21세기 **김정일**시대

김정일영도자의 절대적 권위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영도는 민족자주위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민족자주위업은 자주와 예속, 애국과 매국간의 첨예한 투쟁이다. 주체적 역량의 강화와 과학적인 전략전술적 영도에 의해서만 민족자주위업은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 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공고히 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적 영도로 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실 분은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영도력과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그대로 체현하시어 절대적인 영도적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이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서만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적 영도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더욱 튼튼히 마련되고 필승불패의 역량으로 강화되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무엇보다도 공화국에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룩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시고 공고발전시키시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일체를 이룩하여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한 공화국의 주체적 역량은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의해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진 속에서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끄떡없이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그 절대적 우월성을 과시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책동도 짓부술 수 있는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되었으며 조국통일의 가장 위력한 주체적 역량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이남에서도 각계각층의 민중은 하나로 결집된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으로 강화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인 민중은 근로민중을 기본으로 하고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가진 각계각층의 군중이라는 역사에 전례없는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어 이남에서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여주시었다.

오늘 이남의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은 민족자주의 위대한 기치인 주체사상을 조국통일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에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힘있게 나서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탁월한 전략전술적 영도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특수한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80년대에 이남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아지고 통일운동의 주체적 세력이 장성하는데 맞게 반미자주화를 기본으로 하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이남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운동은 일대 고양기에 들어섰고 미제의 식민지통치기반은 그 밑뿌리부터 흔들이기 시작하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 제시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방침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영도를 따라야 북과 남, 해외의 겨레들을 조국통일의 주체세력으로 결집시키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한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일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이남의 반동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운동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나갈 수 있다.

(내일 계속)